

민주, 전북 기초장 14곳 중 10곳 압승

광역·기초의원도 싸늘이...평화당 2석·무소속 2석 확보 평화·바른미래 다음 총선서 단체장 지원 못받아 '비상'

더불어민주당 바람은 전북지역 선거도 휩쓸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민주평화당과 인물을 내세운 무소속은 간신히 각각 2석씩을 확보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은 단 한 명의 당선인도 배출하지 못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북지역 14개

초단체장 선거에서 10명의 시장·군수를 배출했다. 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14곳 중 절반인 7명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3명이 늘어난 압승을 거둔 것이다.

무소속 후보들은 지난 선거에서 전체의 절반인 7명이 시장·군수직을 차지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입실근 심만·무주군 황인홍 당선인 2명이 입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2년 전 무소속 시장의 낙마로 재보궐선

거를 통해 익산시장에 당선된 평화당 정현을 후보는 재선에 성공, 유기상 고창군수 당선인과 함께 평화당의 체면을 살렸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반토막이 나면서 총선을 염두에 둔 평화당,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비상이 걸렸다. 이번 선거 결과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은 평화당 5명,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각각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0명이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14개 시·군 중 민주당이 10개를 석권, 사실상 싸늘이했다.

평화당은 익산시와 고창군 등 2개를 건

지는데 그쳤다. 나머지 2곳은 무소속 후보들이다.

이는 다음 총선에서 익산시와 고창군을 제외한 평화당 의원들은 단체장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2개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보한 바른미래당은 단 한 곳의 기초단체장도 확보하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바람 앞의 촛불이 됐다.

전북정부가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중앙당 차원의 정계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대로 다음 총선에 임한다면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등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음=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김경구·경식 형제 나란히 군산시의원 당선 익산시 장경호 후보 1표 뒤지다가 2표차 역전승

전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형제 가 같은 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나란히 당선되고, 1표 차이로 뒤진 후보가 재개표로 역전하면서 배지를 거머쥐는 기쁨을 안았다.

군산시 기초의회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경구(67)·경식(50) 형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각각 최다 득표로 나란히 시의원에 당선됐다.

형인 김경구 당선인은 '가선선거'에서 7명의 후보 가운데 24.6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군산시의원 최다선(6선) 의원이 됐다.

동생인 김경식 당선인은 5명이 출마한 '사선선거'에서 43.77%로 최다 득표율을 기록, 첫 시의원 배지를 달게 됐다.

김경구 당선인은 "동생과 함께 시의회

에 입성하는 가문의 영광을 얻었다. '성실히 살면서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는 선친 유언을 잘 받든 것 같아 기쁘다"며 "동생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개표 최종 확인(재개표)으로 당락자가 바뀌었다.

'나선거구'에 출마한 민주평화당 장경호 후보는 개표 결과 1424표로 같은 당 최병호 후보에게 1표를 뒤졌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재개표에서 3표를 추가로 획득했다.

이에 따라 뒤졌던 장 후보가 최 후보를 2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이 확정,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후보의 희비가 뒤바뀌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익산=유영경 기자 yiy@

“진화한 정책으로 전북발전 결실 맺겠다”

송하진 전북지사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송하진(66) 전북지사 당선인은 “압도적인 지지율로 다시 한 번 저를 선택해주신 도민께 감사드립니다”고 14일 당선소감을 밝혔다.

총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된 송 당선인은 “뜨거운 지지는 전북 대도약을 추동할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송 당선인과 일문일답.

-압도적인 지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북이 더 풍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따뜻해질길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 응축된 것으로 본다. 저의 열정과 정부 여당이 합심하면 전북발전이 가속할 것이라는 기대도 작용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성심을 다해 전북 도정을 이끌어갈 것이다.

-전북경제가 위기다. 해법은 무엇인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 GM 군산공장은 글로벌 경제의 험한 파도를 넘지 못했고 서남대학교는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로 문을 닫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잘못된 정책의 결과들을 리셋할 기회, 더 건강한 체질로 바꿀 기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도민의 눈물과 아픔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7기의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민선 6기의 정책을 진화시켜 7기에는 열매를 맺겠다. 모든 정책은 진화적 관점에서 전북발전을 이뤄낼 확실하고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전북에 실질적인 이득이 되고 효율적인 발전을 선사하는 정책으로 도정을 힘차게 이끌어갈 것이다. 그간 꾸준히 발전역량을 축적해 온 새만금권·혁신도시권·동부권·서남권은 혁신성장의 4대 권이 되고 4개 권을 연결하는 새만금혁신도시 동부권축·내륙혁신도시중심축·동부덕유산권축·서남부지리산권축 4축은 전북의 성장축이 될 것이다. 또 14개 시군의 특성화 사업들이 4대권·4대축으로 촘촘히 연결되면 더없는 상생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상대 후보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에 속상했다. 하지만 더 잘하



더불어민주당 송하진 전북도지사 후보가 13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캠프 사무실에서 6·13 지방선거 개표방송 시청 도중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이 확실시 되자 아내 오경진씨와 함께 기뻐하고 있다.

라는 채찍으로 삼을 것이다.

-지역발전의 전망은 어떤가?
▲지역발전에도 오랜만에 쾌속 풍이 불고 있다. 3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공공매립을 추진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 산업지도를 바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벨리와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전북의 자존심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고 국가예산확보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북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인사·예산·정책에서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전북발전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본다.

-“행정의 달인”으로 통한다. 앞으로 포부를 밝혀달라
▲그때그때의 이슈에 대응하는 근시안적 정책으로는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낼 수 없다. 시대를 조감하고 정책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지방 정부를 오고고 정치와 행정을 두루 겪어 본 경험, 이론과 실무를 모두 체화한 40여년 경력의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확실히 보여드리고 싶다.

/연합뉴스

“아이들 진로·적성 찾아주는 교육 매진”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

3선 고지에 오를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은 “3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초선이라는 마음을 갖고 전북교육이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14일 말했다.

김 당선인은 “선거 현장을 돌면서 전북교육과 나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됐다”며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 당선인과의 문답.

-당선 소감은.
▲3선이 아니라 초선이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3선 교육감에게 도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거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배웠다. 전북교육의 성장과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임할 것이며, 약속한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를 평가한다면.
▲유독 네거티브 공격이 난무했다. 가족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형태의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쏟아져 가족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다. 교육감 선거답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질 높은 정책대결이 이뤄져야 했는데 네거티브 중심의 선거 행태와 ‘학력 팔찌론’ 등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한민국 선거가 정책선거로 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거 과정에서 ‘학력 저하’를 둘러싼 논란이 많았다. 학력 문제를 어떻게 풀이할 것인가.
▲전북 학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중위권으로 비교적 잘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아이 중에 기초학력이 미달한 학생이 타 시도보다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 기초학력 떨어지고 매도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선거기간 내내 가슴이 아팠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 공부 목표가 분명해지면 학업 열기가 높아진다. 또한,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전념



김승환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축하 꽃다발을 받고 웃고 있다.

하도록 하는 것이 학력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런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공약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을 만들고,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주는 교육에 매진하겠다. 학교의 민주적 운영과 학생과 교사 등 교육주체의 인권을 보호하겠다. 아울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생 안전, 신도심 학교 신설 등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김승환호 3기를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3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청렴한 전북교육청을 유지하고, 부정부패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감이 혼자 주도하는 교육행정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주체와 지자체, 학부모, 교직원 단체 등과 협의하고 토론하겠다. 문재인 정부와 연계해 전북교육이 더 크게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겠다.

/연합뉴스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